

政治學의 理論單位와 方法論的 個人主義*

姜 信 澤
(副教授)

一. 序 論

1. 研究의 目的

社會科學의 다른 分野와 마찬가지로 政治學研究에 있어서도 個人에 관한 用語와 集團에 관한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

本論文에서는 첫째로 이와 같은 個人用語(individual terms) 및 集團用語(collective or group terms)의 特徵과 그들 間의 關係나 連結關係를 考察하고, 둘째로 個人水準理論과 集團水準理論間의 關係에 內包된 問題들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考察은 政治學에서 使用되는 概念과 理論의 性格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 글에서는 勿論 筆者 自身の 새로운 思考나 見解를 提示할 수는 없고, 既存 文獻을 參考로 하여 「方法論的 個人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內包된 몇 가지 爭點을 筆者 나름대로 整理 紹介함에 그치려 한다.

2. 研究의 範圍

우리는 政治學이나 行政學을 研究함에 있어서 흔히 隣接科學의 研究方法이나 成果를 參酌 援用하여야 된다는 말을 듣는다. 나아가서는 「各科協同的인 方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써야 된다는 말도 한다. 이 글의 展開를 위하여 便宜上 우선 隣接科學이라는 말에서 示唆를 받아 볼까 한다.

事實 政治學의 研究方法을 論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研究方法 또는 接近方法이 提示되고 있으며 이러한 方法들은 또 여러 가지로 分類되고 있는데, 그 分類方法中에는 「學科에 依한 分類」가 있다.⁽¹⁾

學科에 依한 分類方法中에서 心理學과 社會學은 一種의 對照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 이 글은 서울大學校 學術財團의 1972年度 研究助成費에 依한 研究報告書의 一部로 쓴 것이다.

1. Vernon Van Dyke, *Political Science: A Philosophical Analysi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p.116-130. 參照

對照는 政治學의 理論을 論함에 있어서 提起되는 極端的인 見解들과 關聯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 所謂 心理學的 方法에서는 社會環境의 影響이 무엇인가 하는 것 보다는 個人 自身 또는 人間 自身을 通하여 政治現象을 說明하려고 하는데, 勿論 그 強調點에는 多樣性이 있으나 主로 人間の 知覺, 學習(learning), 情緒와 動機 및 動作等을 分析考察의 對象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들이 使用하는 理論單位(units of theory)는 個人中心的인 用語들이다. 反面에 社會學的 方法에서는 「個人이 參與하는 環境이 그 個人의 行態를 크게 左右한다」고 하는 根本的인 假定下에 社會環境과 關聯된 人間行態를 研究한다. 여기서 使用되는 理論單位들은 文化, 社會, 身分, 役割等等과 關聯된 用語들로서 이와 같은 用語를 通하여 政治現象이 說明된다.

그런데 萬若 個人 自身을 通하여 政治現象을 理解하고 說明하려는 心理學的 方法論을 그 極端的인 形態로 본다면 環境 또는 社會的 狀況間의 差異는 無視되고 오직 人間の 心理的 屬性 또는 性向間의 差異만이 理論的으로 意義가 있게 된다. 即 極端的인 心理學的方法에서는 “Situational variance is reduced to zero.”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社會背景을 가진 個人들은 거의 同一한 狀況에 處하면 거의 비슷하게 行動할 것이다」라는 社會學的 方法의 基本 命題를 그 極端的인 形態로 본다면, 個人間의 差異는 無視된다. 오직 社會環境 또는 狀況間의 差異만이 政治現象을 意義있게 說明해 줄 수 있다는 立場이 된다. 即 極端的인 社會學的方法에서는 “Individual variance is reduced to zero.”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極端的인 立場을 놓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融合시키거나, 政治學에서 提起되는 問題의 側面에 따라 選擇의으로 應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上記 두 가지 立場을 融合시키거나 選擇의으로 應用한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는 더욱 까다로운 問題들이 內包되고 있는 듯 하다. 即 融合에 依하여 나타나는 分析單位나 理論單位의 特性은 무엇이 될 것이며, 個人水準이나 集團水準의 理論을 側面에 따라 應用할 수 있게 하는 政治學은 과연 어떤 體系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問題들이 아직도 남아 있게 된다.

結局 이러한 問題들은 研究目的에서 言及한 個人 및 集團用語間의 關係와 水準이 다른 理論間의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이 論文에서는 이것을 方法論的 個人主義라는 立場에서 보기로 한다. 그리고 用語問題는 第一類型이라 부르며 理論水準間의 問題는 第二類型이라고 부르겠다.

方法論的 個人主義라는 데두리 속에서 集團概念의 屬性, 構成法(composition law) 및 理論間의 還元(reduction)等을 考察하려 한다. 여기서는 理論單位와 水準이 다른 理論間의 關係에 論議를 限定시키고 政治學에 있어서의 理論과 說明 自體에 관한 問題는 直接的인 分

析의 對象으로 다루지는 않고 論議의 進行上 必要에 따라 間接적으로만 言及될 것이다. 政治學에 있어서의 概念構成, 理論과 說明等에 관해서는 다음 機會에 따로이 論하기로 한다.

二. 方法論的 個人主義： 第一類型

1. (Units of a Theory)

하나의 理論의 基本的인 構造는 最少限 3個의 要素로 構成되어 있다. 即 第1要素와 第2要素는 各各 概念(concept) 또는 理論의 單位이며 第3要素는 單位間의 相互關係를 表現하는 一種의 法則이다.

理論單位는 理論의 對象이 되는 事物 또는 事物의 屬性(property)을 指稱하거나 表現하는 用語(terms)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概念論 自體에 內包된 여러 가지 問題들을 다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으므로 우리가 다음에 論하고자 하는 方法論的 個人主義의 論議와 關聯되는 問題 即 理論單位로서의 用語가 가지는 意味 또는 뜻이 어떻게 定하여지는가 하는 問題에 局限시켜 보기로 한다.

理論單位는 事物을 指稱하거나 事物의 屬性을 表現하는 用語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用語中에는 그 對象物이나 屬性을 直接 指摘함으로써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政治學이나 行政學을 하나의 科學으로 成立시켜 보려는 立場에서는 그들이 使用하고 있는 用語가 적어도 記述的 用語 (descriptive terms)인 限, 그 모두가 終局的으로는 經驗적으로 觀察되거나 實證될 수 있는 對象을 가지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와 같은 用語도 分類를 해 본다면 前述한 바와 같이 그 對象을 直接 指摘하거나 觀察할 수 있는 것과 어느 程度 抽象化되어 間接적으로만 實證對象에 連結될 수 있는 것으로 區分될 수 있다. 科學哲學(Philosophy of Science)에서 使用하는 用語를 區分하면 이러한 區分은 原語(primitive terms or units)와 定義된 用語 (defined terms or sophisticated units)로 表現된다.⁽²⁾ 말을 바꾸면 用語中에는 定義된 用語와 더 以上 定義될 수 없거나 定義할 必要가 없는 用語가 있는 것이다.

定義된 用語나 定義된 理論單位가 意味를 갖게 하는 것은, 그러한 用語를 다른 用語로 代置시켜 놓기 때문이다. 用語의 定義 또는 概念定義란 一定한 用語를 다른 用語로 代置시켜 놓은 것이라는 생각을 잘 類推 解明해 주고 있는 Richard S. Rudner의 見解를 보기로 한다.⁽³⁾

이와 같은 類推에 依하면 우리가 日常적으로 쓰는 言語에도 同義語(synonyms)라는 것이

2. Gustav Bergmann, *Philosophy of Scien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57), Ch. 1.

3. Richard S. Rudner,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p. 14.

있어서 이와 같은 同義語中 하나 짝을 없애도 文章構成上 意味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一定한 言語가 가지고 있는 모든 單語를 다음과 같은 두 種類로 分類할 수도 있는 것이다. 卽 첫째는 同義語가 없는 單語와 同義語中 하나 짝만 고른 것들이며, 둘째는 同義語中 그 나머지 部分이다. 理論에서 使用하는 用語들과 關聯시켜 보면 첫째의 種類가 原語이며 둘째의 種類가 定義된 用語라고 할 수 있다. 둘째의 種類를 定義된 用語라고 할 수 있는 理由는 첫째의 種類와 뜻이 같은 것으로 代置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極히 簡單히 살펴 본 原語와 定義된 用語라는 區分을 通하여 우리가 지금 關心을 가지고 있는 個人用語 및 集團用語의 問題에 接近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科學의 用語가 終局的으로는 觀察될 수 있는 實證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할 때 個人用語는 쉽사리 實證物(referents)과 連結될 수 있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卽 個人用語가 指稱하는 事物은 物理的으로 存在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集團用語는 어떻게 實證物과 連結이 되는 것인가? 集團用語에 依하여 表現되는 事物도 우리가 直接 觀察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集團用語中에는 個人用語에 依하여 分析되거나 定義될 수 없는 用語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論議의 對象인 것이다.

이 問題를 다루기 前에 다음 部分에서 먼저 理論單位의 種類를 간단히 要約해 보기로 한다.

2. 理論單位의 種類

Lasswell과 Kaplan은 그들의 共著 *Power and Society*⁽⁴⁾의 序頭에서 “政治學의 主題는 여러 가지 行動의 展望(perspectives)을 가진 個人(persons)의 行動으로 構成되며 이것은 程度를 달리하는 複雜한 集團(groups)으로 組織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見解는 個人이 行하는 行爲가 政治過程의 基本單位라는 立場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集團이나 過程에 관한 概念 卽 理論單位는 個人的 屬性을 그 構成要素로 하여 점차 複雜한 單位를 定義해 나가고 있다. 參考로 여기서 考察되고 있는 概念들의 分類를 보면, 個人(persons), 展望(perspectives), 集團(groups), 影響力(influence), 權力(power), 象徵(symbols), 慣行(practices), 機能(function), 構造(structures) 및 過程(process) 등의 順으로 되어 있다.

個人, 展望, 集團 등은 基礎이며, 이들의 相互作用은 影響力과 權力の 패턴에 依하여 形成되고, 그것은 象徵으로 表現되거나 영향을 받으며 特定한 政治的 慣例로서 安定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政治的 慣例나 慣行이 奉仕하는 目的은 權力の 機能인 것이며 이와 같은 慣例가 比較的 安定된 속에서 進行될 때 權力構造가 形成된다. 끝으로 政治過程은 一定 時期에 行하여지고 있는 모든 政治活動의 패턴이라고 하였다.

4.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A Framework for Political Inquir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50).

以上の檢討는 政治學의 理論單位가 個人用語로 부터 出發하여 점차 복잡한 集團用語로 構成되고 있는 例를 보기 위하여 提示되었으며 同時に 그것들이 어떻게 分類되고 있는가를 參考하기 위하여 要約해 본 것이다.

우리의 關心을 좀 더 넓혀서 一般的으로 社會科學의 理論單位가 어떻게 分類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한다. Russel R. Ackoff는 研究目的에 따라 定義를 달리할 수 있는 概念을 屬性, 對象, 事象 및 過程等으로 나누고 있다.⁽⁵⁾

屬性(Property)은 事物들이 가지고 있는 特徵인데 調查研究의 目的에 合當하게 定義되면 그 主體와 環境 및 觀察될 수 있는 衝動과 反應(stimulus and response)이 具體的으로 表現되어야 한다.

對象(Class of objects)은 特定한 屬性들의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定해진다. 即 研究나 分析 또는 理論構成의 單位가 되기 위하여는 屬性 p_1, p_2, \dots, p_n 을 가진 事物만이 對象이 될 수 있다고 限定을 시켜야 한다.

事象(Events) 또는 事件은 一定群 또는 集團의 對象이 가지는 一個 以上の 屬性에 變化가 일어날 때 發生한다. 即「萬一 X 對象들의 屬性 p_1, p_2, \dots, p_n . 이, 다른 屬性인 q_1, q_2, \dots, q_n 으로 變하면 事件 E가 發生한 것이다」라고 定義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過程(Process)은 特定한 產物 또는 事物의 狀態를 가져 오는 事件의 連續이다.

위에서 본 例에서는 個人이나 集團이나하는 兩分法이 明示的으로 言及되고 있지는 않으나, 推定컨대 그 論理는 個體로 부터 集合體로 점차 複雜性を 增加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即 集合體나 複雜한 過程도, 적어도 原則的으로는 個體들의 屬性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個體의 屬性으로 分析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理論單位의 種類를 또 달리 分類하는 例로서 Robert Dubin의 것을 볼 수 있다⁽⁶⁾ Dubin은 理論構成과 關聯된 理論單位의 種類로서 列舉의單位, 結合的單位, 關係的單位와 統計的單位를 들고 있으며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의 理論構成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하나의 學問을 研究하거나 教育함에 있어서 必要한 單位로서 總和的單位를 論하고 있다.

列舉的單位(Eumerative unit)란 하나의 事物이 그 모든 條件下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屬性의 特徵이다. 即 觀察하거나 想像할 수 있는 事物의 狀態 如何에 不拘하고 그 屬性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列舉的單位는 普遍的이므로 考察對象이 되고 있는 事物의 어떠한 標本(sample)에도 存在하며 헤아려진다. 따라서 列舉的單位의 두 가지 補完的인 特性은 첫째 그것이 事物의 모든 狀態下에서 普遍的으로 存在한다. 둘째 그러므로 零의 값(zero value)을

5. Russel R. Ackoff, *The Design of Social Researc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p.59-64.

6. Robert Dubin, *Theory Building*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pp.50-63.

가진 어떠한 單位도 列擧的單位가 될 수 없다. 列擧的單位의 例를 든다면 人間의 性, 動機, 年齡, 社會的 行爲等과 集團의 境界, 目的, 密着性, 規模等이다.

結合的單位(Associative unit)는 事物이 몇몇 特定한 條件下에서만 가지는 하나의 屬性的 特徵이다. 零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點을 빼면 列擧的單位와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零의 存在가 이 單位의 決定的인 特徵이며 그것이 事物의 特定한 狀態와의 結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結合的單位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다. 結合的單位의 例는, 人間의 生産의 技術, 公式的 教育, 收入等과 集團의 神話, 安定度, 指導性等等을 들 수 있다.

關係的單位(Relational unit)는 一定 事物의 特性으로서 그것은 오직 他屬性들과의 關係에 依해서만 決定된다. 關係에는 二種이 있는데 하나는 屬性間的 相互作用이며 다른 하나는 屬性들이 어떻게 結合되어 있는가를 表現하는 것이다. 따라서 銘心할 것은 關係的單位는 적어도 다른 두개의 屬性으로 부터 導出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關係的單位는 언제나 그 構成要素로 分析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如何間 關係的單位는 列擧的單位나 結合的單位보다는 恒常 더 큰 複合性을 지닌다. 이와 같은 複合性 때문에 그러한 用語는 社會現象에 관한 理論構成에 있어서는 分명한 利點이 있다. 왜냐 하면 社會現象은 複合的인 것이니 이와 같은 用語가 그 複合的 現象을 要約 表現하여 주기 때문이다. 同時에 그 危險性은 이러한 用語의 複合的 特性을 잊는다든지 理論構成이나 그 陳述 또는 言明(statement)의 內容이 不分明해질 可能性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用語 自體를 擬人化(reify)하여 하나의 實體로서 다루게 되는 傾向도 助長한다는 것이다.

統計的單位(Statistical unit)도 事物의 屬性으로서, 事物이 가지고 있는 屬性的 分布를 要約 表現하는 用語이다. 屬性分布의 要約은 中心傾向, 分散 및 相對的 位置等の 要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끝으로 總和的單位(Summative unit)란 一體의 複合的 事物을 指稱하는 總體的인 單位이다. 그 特徵은 數 많은 屬性을 한데 뭉쳐서 그 中에서 좀 더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表現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定義가 分明치 않거나 明示되지 않은 數 많은 意味를 가질 수 있는 것이 總和的 單位이다. 이와 같은 單位는 學問上 必要하기는 하지만 嚴密한 意味의 理論構成에는 別로 도움이 못된다고 하는 것이 Dubin의 見解이다.

그런데 Dubin의 立場의 特色은 個人이라든지 集團等の 事物 自體는 理論單位로 보지 않으며 오직 이들 事物이 가지고 있는 屬性만이 單位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⁷⁾ 따라서 여기서는 個人用語와 集團用語의 關係라기 보다는, 위에서 본 關係的 單位라든지 總和的單位와 其他 單位間的 關係가 우리의 關心에 가까운 것이 된다.

7. *Ibid.*, pp. 30-32.

3. 集團概念(또는 集合의單位)과 方法論的 個人主義

지금까지 우리는 比較的 單純하고 直接 觀察될 수 있는 理論單位로 부터 점차로 複雜하고 그 屬性을 直接 觀察할 수 없는 理論單位들에 이르기까지 몇 사람의 見解를 通하여 그 種類를 살펴 보았다. 그것들을 個體概念과 集合體概念이라고 表現하든 또는 個人概念과 集團概念이라고 表現하든지 間에, 個人들은 一定한 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集團도 個人이 갖지 않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도 이와 같은 事實이 存在한다는 것을 否認하는 사람은 없다. 前項의 例에서 檢討한 學者들의 見解에서는 個人과 集團의 連結에 別로 큰 困難이 없는 듯 하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即 集團의 屬性中에는 集團을 構成하고 있는 個人의 行態에 依해서나 또는 個人間의 關係에 依해서거나, 또는 그 兩者를 通하여 定義될 수 없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論爭의 對象이 되고 있는 것이다. 個體나 個人을 가리키는 用語中에도 가령 色을 指稱하는 말이든가 其他 直接 觀察되는 屬性을 가리키는 말중에는 定義될 수 없거나 더 以上 定義할 必要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前述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集團屬性中에서도 直接 觀察는 되지만 個人屬性이나 關係에 依하여 定義될 수 없는 用語가 있는가 하는 것에 關하여는 對立되는 見解들이 있다.⁽⁸⁾

모든 集團用語는 結局 特定 狀況下에서 여러 사람이 갖는 行態, 信念 및 態度에 관한 복잡한 類型을 指稱하는 것으로 分析될 수 있다고 하는 見解를 方法論的 個人主義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見解를 否定하는 것, 即 個人屬性에 依하여 定義될 수 없는 그 自體의 屬性을 가진 一體(wholes)나 集合體가 있다는 見解가 形而上學的 神秘主義(metaphysical holism)이다.

하나의 事實을 記述(describe)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또는 그 以上の 物體가 特定한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 即 定義되거나 定義되지 않은 하나의 概念이 實證될 수 있는 事例(instance)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定義될 수 없는 集團屬性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記述的 水準에 있어서의 生成(emergence) 即 “descriptive emergence”를 意味하며 方法論的 個人主義의 立場에서 본다면 神秘主義(holism)는 하나의 descriptive emergence를 意味하는 것이다.

三. 方法論的 個人主義： 第二類型

1. 理論과 說明

8. May Brodbeck, “Methodological Individualisms: Definition and Reduction,” in May Brodbeck,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cMillan,) p.282.

方法論的 個人主義에 關連된 여러 見解가 上揭書에 收錄되어 있다. 以下 別途의 表示가 없는 限 上揭書의 여러 部分을 參照한 것이다.

이제 理論單位의 記述의 問題를 떠나 個人水準理論(individual level theory)과 集團水準理論(group level theory)간의 問題와 關聯된 몇 가지 見解를 考察하기로 한다.

앞에서도 言及한 것처럼 하나의 理論은 最少限 두개의 單位間的 關係를 表現하는 것이다. 좀더 一般的으로 말하면 “하나의 理論은 經驗의으로 檢證될 수 있는 一聯의 言明들이며 그 中에는 一般法則이 包含되어 있다.”⁹⁾ 그런데 이러한 理論은 科學者들이 關心을 갖는 現象을 理解하고 說明하며 豫測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이다.

이제 問題가 되는 것은, 理論單位에 있어서 個人用語와 集團用語間的 關係가 問題되듯, 個人水準理論 即 個人性向中心의 概念들만으로 構成된 理論과 集團水準理論 即 集團屬性에 關한 概念들만으로 構成된 理論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關係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萬若 個人水準理論으로 부터 점차 集團水準理論을 構成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結局은 個人水準理論이 모든 理論의 基礎가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個人水準理論만을 通하여서도 人間의 모든 個人的 및 社會的 行動뿐만 아니라 人間集團과 社會現象을 說明하고 豫測할 수가 있다면 社會理論은 不必要하거나 終局的으로는 個人理論으로 還元(reduction)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個人的 行動과 社會的 事件間的 關係의 問題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社會的 法則 即 集團과 그 屬性만을 言及하는 法則이 個人的 行態에 關한 아무런 言及없이도 社會的 事件을 完全하게 說明하고 豫測할 수 있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社會概念이 總體的으로 理解되고, 個人的 選擇은 英雄의 것이든 匹夫의 것이든 아무런 影響을 미칠 수 없는 社會 또는 文化의 獨自의인 法則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強硬한 社會的 決定論者 (Social determinist)의 立場이다. 反面에 모든 社會法則은 적어도 原則上으로는 (in principle) 個人法則으로 還元시킬 수 있다고 主張하는 見解가 있는데 이것도 一種의 方法論의 個人主義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서는 그것을 第1類型과 區別하기 위하여 第2類型이라 불렀다. 方法論의 個人主義의 第1類型은 概念定義上 提起되는 問題이며 第2類型은 說明과 理論上的 問題로 提起되는 것으로서 兩者는 그 文脈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以下에서는 方法論의 個人主義의 第2類型을 理解하기 위한 몇 가지 問題를 簡單히 檢討하겠다.

2. 相互作用法則 또는 過程法(Law of Interaction or Process Law)

하나의 理論이 어느 程度나 完全한가 하는 것은, 그가 對象으로 하는 理論領域에서 一種의 閉鎖(closure)와 完全性(completeness)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即, 理論이 使用하는 用語의 實證物들(referents)은 一定時 또는 地域內에 있어서 오직 그들끼리만 相互作用하

9. Rudner, *op. cit.*, p.10.

10. Brodbeck, *op. cit.*, p.289.

고 있는가의 與否와 同時에 理論上 커다란 差異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變數가 理論表現에서 除外하고 있지는 않느냐의 與否에 달려 있는 것이다.⁽¹⁰⁾

“가령 物理學에 있어서는 變數 x 가 變數 y 의 函數라고 한다면 우리는 x 의 變化가 y 의 變化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逆도 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變數中 하나가 없으면 다른 變數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설사 A 는 B 의 原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B 의 變化가 A 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지 모르며, A 가 없으면 B 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말할 수 있는 境遇란 드물다.”⁽¹¹⁾

閉鎖, 完全性, 正確하게 確認할 수 있는 證據, 豫測 또 計算의 時間的 確定性等이 最上の 知識이 가지고 있는 要素들이다. 이런 경지에 到達한 法則을 過程法(process law)이라고 부른다.⁽¹²⁾

그렇다면 社會에 관한 完全한 知識은 成立될 수 있는가, 即 閉鎖되고 完全한 集團變數만을 包含하는 하나의 過程理論(process theory)의 形成이 可能한가 하는 問題가 個人主義의 立場에서 提起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두개의 局面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政治學, 社會學 등의 分科가 社會科學에서 成立된 結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個人理論과 集團理論間的 關係로 이 두 局面의 考察은 相互 關聯된다.

가령 政治學徒는 經濟的要因이 그가 直接 關心을 가지고 있는 投票行爲를 說明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經濟的 要因 自體를 說明하려고 하지 않는다. 社會科學의 各 分科마다 變數를 區分하고 制限을 加하는데 이와 같은 區分과 制限은 政治學이면 政治學, 社會學이면 社會學의 完全성에 影響을 미친다. 即 어떠한 社會科學도 獨自의으로 그 自體의 用語만으로써 完全성을 達成하게 되리라고 期待할 수는 없다. 完全性이라는 意味를 一定한 理論單位間的 排他的인 相互依存性이라는 嚴格한 意味로만 본다면,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完全性이란 人間行態의 全範圍를 둘러싸는 하나의 巨大한 社會科學의 成立에 依해서만 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¹³⁾

이러한 問題의 또하나의 局面은 前述한 바와 같이 個人理論과 集團理論의 關係인데 이것은 微視的變數(microvariable)를 쓰는 分野와 巨視的變數(macrovariable)를 쓰는 分野와의 關係이기도 하다. 가령 生理學은 心理學에 比하여 微視的이며 心理學은 社會學에 比하여 微視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 兩者間에 還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提起되는 問題임은 이미 言及하였다. 다음에는 原則上 하나의 科學은 다른 科學으로 還元시킬 수 있다고

11. *Ibid.*

12. Bergman, *op. cit.*, ch. 2. 參照

13. Brodbeck, *op. cit.* p. 293.

보는 사람들의 立場에서, 例를 들면, 心理學과 集團科學(政治學을 包含한)을 連結하는 論理로서 提示하고 있는 것들을 考察하겠다.

3. 構成法과 還元 (Compositoin Law and Reduction)

完全한 하나의 理論은 그 體制(system)가 어떤 주어진 時點에서 어떤 狀態(state)에 있는가를 알면 다른 모든 時點에 있어서의 그 體制의 狀態를 計算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완전한 모든 理論은 所謂 基本狀態(elementary situations)에 관한 法則 以外에 體制의 範圍를 增加시켜 줄 수 있는 다른 類型의 法則을 包含하는데, 이러한 法則은 理論 그 自體로 부터 演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基本的인 體制로 부터 더 複雜한 體制를 計算해 낼 수 있게 하여 주는 法則을 構成法(composition law or rule)이라고 부른다.⁽¹⁴⁾

萬若 우리가 構成法만 제대로 찾아 낼 수 있다면, 分명한 定義와 더불어 個人的 行態만을 研究하면 될 것이고 別途로 集團의 行態를 研究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社會科學에는 單一分野밖에 없고 그것은 個人水準의 理論으로만 形成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構成法이 있기만 한다면 社會學이나 政治學을 心理學(좁은 意味에 있어서의 心理學이 아니라 個人屬性中心의 學問)의 理論으로 還元시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論理的 作業에 不過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方法論의 個人主義의 立場을 取하는 經驗論者에게는 原則上 社會法則은 個人에 관한 法則으로 還元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原則上 可能하나 實際로는 困難한 경우를 볼 수 있다. 構成法은 어디까지나 經驗的인 一般法則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限界點에 到達해서는 構成되지 못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一定水準 以上の 複雜한 體制에 到達하면 人間行態에 관한 法則이 없을 可能性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個人行態에 관한 法則으로 부터 構成法을 包含한 集團行態의 法則을 誘導해 볼 수 없다면 이것은 說明上的 危機 卽 一種의 說明的 變異나 生成(explanatory emergence)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듯 個人主義者들로 보아서도 個人에 관한 法則으로 부터 모든 社會法則을 導出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原則上 可能하나 實際로는 不可能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와 對照되는 것이 社會的 決定論으로서, 모든 社會法則은 어떠한 個人에 관한 法則으로 부터도 豫測할 수 없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四. 要 約

以上에서 概念 또는 理論單位의 定義에 있어서 對立되는 두개의 見解와 理論的 說明에 있

14. 이 部分은 Bergman, *op. cit.*, ch. 3 및 Brodbeck, *op. cit.*, p. 298. 參照. 社會科學은 그 自體의 論理가 있으므로 비록 그 用語는 個人屬性에 관한 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社會學의 心理學에의 轉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하면서 이 問題를 자세히 다룬 學者로서 Quentin Gibson이 있다. 그의 著書 *The Logic of Social Enquiry* pp. 92-112 參照.

어서 對立되는 두개의 見解를 보았다. 概念에 있어서는 方法論的 個人主義와 神祕主義가 對立되고, 說明에 있어서도 個人主義者와 集團論者가 對立되고 있다.

따라서 概念과 說明에 관한 主張들을 結合시켜 보면, 概念에 관한 個人主義者가 同時에 說明에 관한 個人主義者인 경우가 생기는 것은 勿論이고 概念에 관한 神祕主義者가 說明에 관한 集團論者가 되는 것은 當然하다.

概念에 있어서는 個人主義이면서 說明에 있어서는 還元論을 否定하는 集團論者가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나, 反面에 論理的으로만 본다면 神祕主義者도 還元論者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卽 個人屬性으로 分析될 수 없는 集團屬性만으로 構成된 法則이나 理論이라도 經驗法則에 依하여 集團內的 個人的 行態에 連結된다고 主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政治學과 關聯시켜 보면 위에서 본 세가지 類型의 立場이 共存할 可能性이 있다. 어떠한 立場을 擇하건 거기에 內包된 問題가 分別되지 않는다면 概念驅使와 理論構成에 있어서 論理的으로 妥當치 않은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을 것이다.

構成法の 發見과 關聯하여 言及한 바 있듯이, 原則적으로는 可能하나 實際로는 構成法을 찾아 내기가 不可能하거나 너무나 번거로운 理由로 困하여 政治學에서도 集團概念에 依한 理論構成方法을 계속하여 使用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許多할 것이며, 그나마 限定된 集團屬性만을 使用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形成되는 法則은 언제나 不完全성을 지니고 있을 可能性이 높다.